

오월의 기록 “잔잔한 기억의 서사 뭉클”

CULTURE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오월미술관을 꾸리면서 소설가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범현이 관장이 잊혀져 가는 오월의 기억을 일깨우는 동시에 오월의 참화를 겪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재 진행형인 ‘오월’을 글로 마음에 새겨 넣었다.

아마 그에게는 오월이 역사책에서 본 사건이 아닌, 고 3 중간고사 무렵 겪은 실제의 일로 여전히 기억 속 부채의식으로 남아있기에 그의 마음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겨넣은 일과 진배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가 꾸리고 있는 미술관의 이름 ‘오월’만 보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월 기록에 나섰는지 유추해볼 수 있다.

최근 그가 지금도 고통에 시름하는 사람들의 5·18항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총알의 기억’ (내일을 여는 책刊)을 펴냈다. 오월 이후의 세대에게는 한 편의 비극을 다룬 소설처럼 읽힐 수 있지만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세대들에게는 엄연히 근현대사에 대한 기록으로 이해되지 않을까 싶다.

그의 오월에 대한 규정은 ‘잊히지 않고, 바뀌지 않으며,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제 좌측 부제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5·18에 대한 생각의 행간을 짐작해볼 수 있다. 그리고도 남겠다라고 드는

범현이 소설가 겸 오월미술관장

5·18 형상화 ‘총알의 기억’ 펴내

“진실을 공유하고 꿰뚫어볼 힘”

‘꿈꾸는 총알’

5·18항쟁 중 총상 입은 남자 스토리

‘아름다운 상상’

80년 5월 총상 사망 임신부 이야기

생각이 오월미술관의 다수 전시를 통해 시대의식을 각인하는 전시를 여러 차례 구현한데서 잘 알 수 있다.

범 관장에게 5·18은 종료된 사건이 아닌, 현재진행형 그대로다. 가장 순정해야 할 시기인 고등학교



시절 계엄군들이 광주시민들을 살상하는 국가폭력을 목도했다. 작가의 말에서 밝히고 있듯 “이것은 청년을 넘어 현재까지 내 삶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문맥에서 오월에 대한 그의 흔들림없는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여전히 미완의 역사로 남고 있기에 1980년 5월 그날을 기억 그 자체로 가슴 속에 꺼내고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2024년 12·3비상계엄 발동으로 그동안 5·18로 인해 탄탄하게 뿌리를 내렸던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았던 일도 그에게는 예사롭지 않았다. 45년 전 5·18이 지금의 민주주의를 지탱시키는 근간이 됐다는 것 역시 그의 의식에서는 확고하다.

실제를 근간으로 하는 다류소설 같은 이 작품집은 두 가지 이야기가 그의 문제로 빚어져 있다. ‘꿈꾸는 총알’과 ‘아름다운 상상’이 그것. ‘꿈꾸는 총알’은 5·18민중항쟁 과정에서 총상을 입은 한 남자의 스토리이고, ‘아름다운 상상’은 1980년 5월 총상으로 사망한 임신부의 스토리다.

‘꿈꾸는 총알’은 총알을 몸에 안고 사는 것이 최선인 상태에서 결국 고통과 상처의 근원인 총알과의 화해를 통해 세계와의 통섭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상상’은 태내 아이가 화자로 세상에 나기도 전에 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아이가 꿈꿨던 세상을 아이의 입을 통해 전해주고 있다.

이 작품집에 대해 조진태 오월문제연구소장은 표사에서 “총알이 나비가 되는 환유를 통해 오월의 평화를 꿈꾸는 잔잔한 기억의 서사가 뭉클하다”고 전했고,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자기 존재에 몰두하고 사색하는 총알이자 시대의 역경을 헤쳐 가는 아버지를 기다리다 계엄군의 총에 맞고 절명한 임신부 배 속 태아의 절규”라고 언급했다.

저자는 “이 두 이야기는 5·18민중항쟁에 대한 기록의 한 편린일 수 있다. 문학의 가장 근본인 당대

의 기록에 대한 리얼리즘 말이다. 언제나 진실을 이야기해야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하고, 불편한 진실들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야말로 문학의 역할이기 때문”이라면서 “흔든 그 자체의 참혹한 시대이지만 문학은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공유하며 꿰뚫어볼 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작품 속 주먹밥이나 투사화보 등 오월항쟁을 상징하는 매개는 물론이고 1980년 5월 8일 전남대총학생회와 조선대민주투쟁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제1시국 선언문’ 같은 귀한 사료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외에 작품집 말미에는 연보와 같은 ‘5·18민주화운동의 그날들’을 첨부해 5·18 이후 세대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작품집 속 그림(삽화)은 ‘박승희장례행렬도’와 ‘1980.5.21. 발포’ 등의 작품을 통해 오월항쟁이 획득한 민주주의의 나아갈 방향 모색에 힘을 보태온 중견화가 하성흥씨가 맡았다.

이번 작품집 속에는 그가 그린 옛 전남도청 광장(현 5·18민주광장)의 그날의 엄숙한 풍경이나 희생된 시민들 운구 장면을 묘사하는 등의 그림이 글에 대한 몰입도를 한층 더 배가시키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생명의 순환과 자연의 하모니’ 탐색

소암미술관, 중진 女작가 기획전 마련

유순 작가전 내달 13일까지 30점 선봬

류신·조성숙 작품 전시 순차적 진행도

광주소암미술관이 세차례에 걸쳐 잇따라 중진 여성 작가 기획전을 ‘Loop-생명의 순환과 자연의 하모니’라는 타이틀로 연다. 이번 기획전은 소암미술관이 2025년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시각예술분야에 선정돼 성사되게 됐다. 소암미술관은 오랫동안 자연과 자연물에 대해 집중해오고 있는 유순 작가를 시작으로 류신 작가, 그리고 조성숙 작가 작품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소암미술관은 먼저 순천 출생 유순 작가 전시를 마련했다. 전시는 ‘Four Seasons-자연에 심상(心像)을 담다’라는 주제로 12일 개막, 오는 7월 13일까지 미술관 제1, 제2전시실에서다.

전시는 조선대 미술대학 석사학위 청구자인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자연에 대한 이미지 재구성’의 관점에서 자연을 소재로 조형화하는 등 20년간의 일련의 작가 작업을 대략 3기로 나뉘어 접근한다.

작가는 여성의 올림머리(12점), 조형화된 four Season(8점), 자연물 four Season(4점), 연(1점), 동백시리즈(5점) 등 총 30점을 출품했다.

자연에 대상으로 한 표현주의를 추구하는 반추상 형태의 작품을 출품한 작가의 작업은 제3기로 나뉘어 접근할 수 있는데 시기별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먼저 제1기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이며 일상에 머무르는 자연물 위주로 회화작업을 하던 시기이다. 자연풍경, 꽃 등 조형성이 나오기 전의 과정이다. ‘free style의 에스퀴즈(esquisse)’ 작품들과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리 펼쳐지는 자연의 생태계를 투영한 ‘바다’, ‘순천만 사계’ 등 4점을 강렬



유순 작 ‘여인-four season’

한 색(色)과 과감한 터치로 선보인다.

이어 제2기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자연물을 조형적으로 구성해가는 중간단계의 시기로 ‘four Season’의 형식을 통해 자연풍경의 내용을 담아내던 무렵이다. 편안하고 힐링이 되는 자연물의 특징적 요소들을 형(形)과 색(色)으로 단순화해 인간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four season’을 비롯해 ‘초봄의 시골 풍경’, ‘한여름 밤의 숲’, ‘노을진 순천만의 가을’, ‘겨울 : 얼어버린’이 해당된다.

또한, 인간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계절감을 주는 색채와 단순화된 자연물을 평면적 구성으로 나타내는 시기로 ‘울춘의 봄’, ‘하동의 여름’, ‘순천만의 가을’, ‘광양만의 겨울’을 four Season 시리즈에 담았다.

제3기는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이며 젊고 신선한 캐릭터의 ‘소녀 spring’ 1점과 멋스럽고 안



유순 작 ‘여인-four season’

정된 올림머리, 우아하고 세련된 올림머리, 입체적이며 미적 아름다움을 주는 올림머리 등 ‘여인 four season’ 시리즈 11점 등 총 12점이 포함된다. 자연이 주는 이미지를 패턴과 색채로 구성해 올림머리 속 사계절에 대입하고 객관적인 대상이 되는 자연물을 주관적인 심상으로 나타내 내적 감정을 색채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반면에 인물표현에서는 선으로 면을 구성하고 색을 통해 입체감을 주지만, 초현실적 대상이라는 점에서 인물묘사에 대한 비중은 크지 않다.

이번 전시는 객관적인 상관물로서의 Four Seasons의 자연에 대한 이미지를 심상으로 재구성, 여성의 올림머리 속 세련된 이미지의 현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부딪히는 고단한 삶의 이야기와 다양한 감정들을 반추상의 이미지로 형상화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빛과 그림자 입힌 ‘판소리 인형극’

‘와그르르 수궁가’ 27~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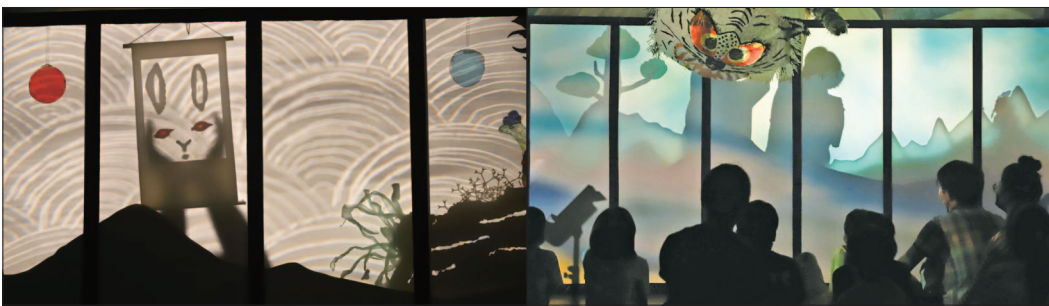
亞문화전당 어린이극장서 공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 사장 김명규)은 판소리 그림자 인형극 ‘와그르르 수궁가’를 27일 오전 11시와 28일 오전 11시·오후 3시, 29일 오후 2시 등 총 4회에 걸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전통문화를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ACC 난생처음 시리즈’로 기획된 ‘와그르르 수궁가’는 관객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참여형 공연이다.

어린이들이 좀 더 쉽게 공감하고 즐길 수 있도록 판소리 구절을 알기 쉬운 말로 바꿨으며, 장난감 단순하게 구성해 어린이 관객이 소리꾼과 함께 호흡하며 주인공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창의적으로 재해석된 전통의 빛과 그림자가 환상적인 무대를 만들어낸다.



‘ACC 난생처음 시리즈’로 기획된 ‘와그르르 수궁가’ 공연 모습.

민화, 산수화, 궁중 장식화 ‘일월오봉도’ 등의 전통 문양과 탈춤 속 사자 가면 등을 재촬영으로 만든 인형이 무대 위에 그림자로 펼쳐지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공연과 연계한 체험 행사로 ‘공연별책부록-그림자 세상 속으로’도 운영한다. ‘공연별책부록’에서

는 놀이를 통해 빛과 그림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만든 그림자 인형으로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꾸밀 수 있다.

입장료는 1만5000원이며, 27일 공연은 1만원으로 특별 할인한다. 자세한 사항은 ACC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다경 기자 alsalsdl94@

제이홉 ‘월드투어’ 52만4000명 동원

양코르 콘서트 4개월 여정 완료
‘BTS 페스타’ 6만 팬 아미 방문

그룹 방탄소년단(BTS) 제이홉이 이틀에 걸친 월드투어 양코르 콘서트로 5만4000명의 관객을 모았다고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15일 밝혔다.

지난 13~14일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양코르 콘서트 ‘호프 온 더 스테이지 파이널’(HOPE ON THE STAGE FINAL)은 지난 2월 서울 올림픽공원 KSPD돔에서 시작한 월드투어를 마무리하는 공연이었다.

방탄소년단 데뷔일인 지난 13일 공연에는 팀 동료 진과 정국이 게스트로 등장해 환호를 끌어들였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단체 무대를 꾸민 것은 2022년 10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진은 솔로곡 ‘돈트 세이 유 러브 미’(Don’t Say You Love Me)를 불렀고, 정국은 제이홉의 랩에 맞춰 ‘세븐’(Seven)을 노래했다. 세 사람은 유닛(소그룹)곡 ‘자메 뷔’(Jamais Vu)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RM, 슈가, 지민, 뷔도 객석에 자리해 공연을

함께했다.

제이홉은 이와 함께 ‘킬린 잇 걸’(Killin’ It Girl), ‘왓 이프…’(What if…) 등 솔로곡 무대를 다채롭게 들려줬다.

제이홉은 이번 월드투어로 4개월간 전 세계 16개 도시에서 33회 공연을 펼치며 관객 총 52만4000명과 만났다.

제이홉은 공연을 마치며 “저는 이 몸이 닿는 데까지 무대에서 춤추고 랩하고 노래할 것”이라며 “아미(방탄소년단 팬덤)의 힘은 대단하고 저를 움직이게 한다. 4개월 동안 정말 좋은 기운을 받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지난 13~14일 공연장 인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된 ‘2025 BTS 페스타’(2025 BTS FESTA)에는 6만여명의 아미가 방문했다.

‘BTS 페스타’는 방탄소년단의 데뷔일에 맞춰 열리는 연례행사로 올해는 20여개 전시와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멤버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보이스 존’(VOICE ZONE), 마이크와 LP 등 애장품을 전시한 ‘BTS 라커’(BTS LOCKER),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받은 트로피를 전시하는 ‘트로피 존’(TROPHY ZONE) 등이 인기를 끌었다. 연합뉴스



13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방탄소년단 데뷔 12주년 기념 축제 ‘2025 BTS 페스타’(2025 BTS FESTA)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